

잘나가던 KIA, 잠실서 급제동... '스윙패' 악몽

원정 LG 주말 3연전 패...패...패...

중심 타선 침묵, 승부처마다 헛방망이 '잔류만 10개' 양현종 4⅓이닝 3실점 패전...김규성 '빛바랜 4안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주말 3연전을 모두 내주며 3연패에 빠졌다.

KIA는 3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3-5로 패했다.

4위는 유지했지만 3위 삼성과의 격차는 4경기로 벌어졌다. 반면 5위 한화에는 반 게임 차로 쫓기게 됐다. 올 시즌 LG전 상대 전적도 2승 6패로 열세다.

패인은 결정력 부족이었다. 득점권마다 흐름을 바꿀 한 방이 나오지 않았다. 잔류만 10개였다.

1회 2사 1·3루, 3회 2사 3루 기회를 모두 살리지 못했다. 8회 2사 1·3루에서도 외야플라이로 물러났다. 9회 2사 만루 기회 역시 승부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KIA 타선의 안타는 총 10개. 김규성이 4타수 4안타 1타점 1득점으로 분전했고 박재현도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심 타선(3-5번)이 침묵했다. 총 12타수 2안타. 특히 김도영이 3타수 무안타 1볼넷에 그쳤다.

마운드도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날 삼자범퇴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경기 내내 주자를 내보내며 어려운 승부를 펼쳐야 했다.

선발 양현종은 4⅓이닝 5피안타 4사사구 1탈삼진 3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불펜은 엇갈렸다. 한재승과 최지민, 정해영, 김범수가 무실점으로 버텼지만 조상우와 광도규는 각각 1실점했다.

KIA는 1회 1사 1·3루에서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내줬다.

5회 균형을 맞췄다.

2사 후 김규성과 박재현의 연속 안타가 나오



3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IA와 LG의 경기. KIA 선수단이 덕아웃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며 1-1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곧바로 5회말 2사 1루에서 좌월 투런 홈런을 맞았다. KIA는 다시 끌려가기 시작했다. 6회에 점수차가 더 벌어졌다. 2사 2루에서 연속 적시타를 허용했다. KIA는 7회 김규성의 좌중간 적시 2루타로 한

점을 만회했다. 9회에 2사 만루 기회를 잡으며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갔다. 김도영이 몸에 맞는 볼로 1점을 추가했다. 그러나 후속 타자가 범타로 돌아서며 더 이상의 추격은 없었다. 결국 KIA는 잠실 3연전을 모두 내주며 고개

를 숙였다. 주중 키움전 스윙의 기세도 멈췄다. 앞서 29일 경기에선 선발 이의리가 2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고, 30일 경기에선 1-3으로 패했다. KIA는 2일부터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홈 6연전을 소화한다. 주중엔 롯데와 만나고, 주말엔 삼성과 3연전을 치른다. /주홍철 기자

안세영, 싱가포르 오픈 제패

컨디션 난조 불구 아마구치 상대 3게임 16-19서 대역전극

컨디션 난조에도 명실상부 배드민턴 '세계 최강'인 안세영(삼성생명)이 싱가포르 오픈 정상에 차지했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싱가포르 오픈 결승에서 3위 아마구치 아카네(일본)를 1시간 5분의 혈투 끝에 2-1(21-11 17-21 21-19)로 제압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이 대회에서 통산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전날 열린 준결승에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경기를 도중 멈추는 악전고투 끝에 천위페이(4위·중국)를 꺾은 안세영은 이날도 온전한 몸상태가 아닌 듯 보였다.

경기 도중 통증이 있는 듯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으나, 특유의 집중력으로 코트를 주도했다.

초반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인 공격으로 아마구치를 몰아붙인 안세영은 첫 게임 5-0에서 상

대 범실을 유도해 내며 6연속 득점을 올렸고, 일찌감치 주도권을 굳혔다.

여유롭게 첫 게임을 21-11로 마무리한 안세영은 2게임에서 아마구치의 맹렬한 추격에 12-12 동점을 허용했다.

안세영이 곧바로 3연속 득점으로 달아났으나, 아마구치가 다시 저력을 발휘하며 16-15로 역전했다. 이후 17-17 팽팽한 동점 상황에서 아마구치가 막판 4연속 득점을 올리며 2게임을 따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운명의 3게임은 1-2점 차 내외로 서로를 쫓고 쫓기는 피 말리는 접전이였다.

16-16으로 맞선 상황에서 아마구치에게 3연속 점수를 내주며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벼랑 끝에서 '감심장' 안세영의 저력이 빛났다. 무서운 집중력으로 4연속 득점하며 20-19 재역전에 성공했고, 마지막 매치 포인트에서 아마구치의 범실을 유도해 내며 극적인 우승을 완성했다.

안세영이 31일 열린 2026 BWF 싱가포르 오픈 결승에서 아마구치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 우승을 거둔 후 포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안세영이 31일 열린 2026 BWF 싱가포르 오픈 결승에서 아마구치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 우승을 거둔 후 포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체육회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지원사업' 박차

4개 분야, 예산 5억원 투입

전남도체육회가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체육회는 올해 지역 맞춤형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 동호회리그, 행복나눔교실 등 4개 분야에 총 5억원(국비 3억5천만원·지방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은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목포, 여수, 순천 등 전남 21개소에서 운영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무료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새벽 및 저녁 시간대를 활용해 전문 강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도민들에게 다

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은 총 4천300만원의 예산으로 33개소에서 운영되며,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해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생활체육 동호회리그는 총 2억2천만원을 투입해 전남 시·군 생활체육 동호인을 대상으로 볼링, 농구 등 33개 리그를 운영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종목별 리그전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동호인 조직 활성화를 물론, 체계적인 리그 문화 정착에도 힘을 보탬 예정이다.

행복나눔교실은 총 9천700만원의 예산으로 소외계층 및 이주배경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15개소에서 운영되며, 다양한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 스포츠 복지 실현과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박희중 기자

홍명보호, 트리니다드토바고 평가전 5-0 완승...고지대 적응 최종 모의고사 1교시 '합격'

'멀티골' 손흥민 "팀원들 자신감 회복"

"이길 때 너무 들뜨지 않고 질 때 너무 다운되지 않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차갑게 식었던 득점포를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시원하게 가동했지만, 한국 축구의 '캡틴' 손흥민(LAFC)은 차분하기만 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31일 미국 유타주 프로보에 위치한 브리검대 사우스필드에서 열린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평가전에서 5-0으로 완승했다.

손흥민이 홍명보호의 선제골과 두 번째 골을 책임지며 '월드클래스'의 진가를 뽐냈다.

전반 40분 김문환(대전)의 땅볼 크로스를 문전 슈팅으로 마무리했고, 3분 뒤에는 페널티킥으로 추가 골을 뽑았다.

손흥민은 소속팀에서 상반기 리그 '0골'에 그쳐 우려를 샀다. 도움만 9개를 올렸다.

골 침묵을 끝냈으나 손흥민은 "골을 넣었을 때랑 안 넣었을 때랑 기분이 비슷한 것 같다"며 "항상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가 해오던 축구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월드컵을 어떻게 더 최선의 상태로 만들 수 있을지를 더 생각하게 되는 하루"라고 말했다.

주장으로서 이번 경기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을 묻는 말에는 "자신감 회복"을 꼽았다.

손흥민은 "선수들이 이런 경기 결과를 얻어



31일 미국 유타주 프로보에 위치한 브리검대 사우스필드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평가전. '캡틴' 손흥민이 첫 골을 성공시키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는 것 자체가 자신감을 끌어내는 데 중요하다"면서 "능력이 좋은 것만큼 자신감도 중요한데, 3월 평가전 두 번으로 많이 떨어졌던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2위의 약체다. /연합뉴스

그러나 손흥민은 "어느 팀이든 상대를 5대 0으로 이기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선수들이 칭찬받아야 할 때는 칭찬을 받아야 하고, 안 좋은 경기를 했을 때는 비판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오늘 같은 경기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네덜란드 장신 센터백 반 흐른스벤 영입

광주FC, 후반기 반등 신호탄 쏘나

프로축구 광주FC가 외국인 장신 센터백을 영입하며 후반기 반등에 나선다.

광주는 지난달 30일 네덜란드 출신의 중앙수비수 태운 반 흐른스벤을 영입, 본격적인 선수단 강화에 나섰다.

1999년생인 반 흐른스벤은 네덜란드 2부 리그 FC 덴 보스에서 뛰어난 194cm의 장신 수비수다.

광주는 반 흐른스벤에게 2023 시즌 K리그 돌풍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네덜란드 출신 센터백 티모와 같은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외국인 선수 영입은 지난해 여름 공격수 프리드룬스 영입 이후 1년 만이다.

광주는 반 흐른스벤 영입을 시작으로 후반기 반등을 위한 외국인 선수 보강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구단은 공수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영입을 통해 팀 분위기 전환과 순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반 흐른스벤은 "광주의 일원이 돼 매우 기쁘고 처음으로 해외 무대를 경험하게 됐는데 새



광주FC 유니폼을 입은 반 흐른스벤 <광주FC 제공>

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광주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과 각오로 이곳에 왔다"고 전했다.

이어 "팬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울 것이며, 광주가 다시 올라가는 시작점에 내 이름이 남을 수 있도록 매 경기 증명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희중 기자